

유아기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제주설화의 의미 고찰

최진원*

요 약

본 연구는 제주의 삼다(들, 바람, 여자)를 주제로 한 제주지역의 설화를 대상으로 유아기 양성평등 교육자료의 활용가능성을 살펴보고자 1,022편의 수집자료 중에서 유아기 양성평등 교육자료로 활용 가능한 6편을 제시하였다. 선별과정은 유아기 발달수준의 적합성, 문학적성, 교육성, 매체의 제작가능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후 선별자료를 대상으로 주인공의 성별과 연령(유·아기, 청·중년기, 노년기)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제주설화에 나타난 지명, 지형 등의 자연 공간, 생활방식, 신앙, 풍속을 살펴보고 여성의 독립성, 적극성, 창조성, 강인함, 주도성 등을 기준으로 설문대 할망, 냇기 송씨대 며느리, 자청비, 수월봉과 녹고물, 영등할망, 산호해녀에 나타난 교육자료의 의미를 찾아보았다. 분석결과, 제주지역의 설화에 나타난 여성은 창조적이며, 강인하고, 지혜 있는 특성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자연과 인간을 사랑하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주제어 제주설화(jeju's transmission story), 삼다(sam-da), 심리적 양성성(psychological andro-gyn)

* 제주관광대학 유아교육과 교수(chj5882@harmail.net)

I. 서론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의 육성은 자국의 전통문화에 기반을 두고 새로운 전통문화를 재창출하여 세계 각국의 문화와 조화롭게 공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부터 출발하여 '주어지는 교육과정'에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지역실정에 맞는 문화연구나 학습 자료의 개발을 통해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문화는 끊임없이 전승되며 창조된다. 문화의 창조는 새로운 것에서 찾을 수도 있으나 조상들의 삶의 정서와 가치관을 통해서 발견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유물로서의 전통이 아니라 과거에 뿌리를 두되 끊임없이 변화되고 재구성되는 전통을 창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설화를 기초로 유아기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문학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설화는 개인의 창작물이 아니라 집단의 공동생활 속에서 공동 심성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꾸며낸 이야기로써, 제주설화는 제주인의 생활상과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다. 설화는 흔히 구전문학에서 기록문학으로 전이되는 과정의 한 양상으로는 인식하고 있으나, 유아기 양성평등 교육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유아기는 경험하지 못한 먼 곳의 이야기보다는 가까운 상황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이미 알고 있는 친근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제주설화는 제주도 유아들의 학습 자료 뿐 아니라 현장학습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유아들은 설화를 통해 지역공동체에 속해있다는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갖게 되며, 유아는 학습자이면서 동시에 지역의 구성원으로 문화생산의 주체자가 될 수 있다.

제주도 전설은 신화나 민담적 요소가 짙은 이야기가 많다(현승환, 1996; 허춘, 1999). 신화란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의 기원이나 그 질서의 형성 등 태초적인 사실을 신을 중심으로 하여 설명하는 신성한 이야기를 말한다. 이와 관련해 민담은 예로부터 말로 민간에 전해 오는 이야기를 말하며, 민간설화라고도 한다. 설화의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자연적, 인문적 특성과 역사적 사실 등은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한 학습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여성성을 점검함으로써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정민, 2004), 제주여성 300명중 96명이 제주여성의 특성으로 강인함(39명), 자립심(29명), 부지런함(28명)을 긍정적 특성으로 들었고, 제주여성이 보완할 점으로 486명중 108명이 상냥함(44명), 부드러움(30명), 애교(21명), 여성다움(5명), 온화함(5명), 미소(3명)로 대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바꾸어 생각하면 기존의 여성성이 수동적이며, 의존적이고, 부드러움을 갖는다는 생각에 대한 상대적인 응답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양성평등 교육자료로 제주설화를 활용하고자 한 점은 첫째, 우리나라의 전통 설화에는 웅녀, 평강공주, 바리데기 등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이루고자 한 여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특히나 제주설화의 주인공은 '힘센 며느리', '신첩며느리 흥할망'이나 '오찰방 누이 이야기', '부대각 남매'에서 처럼 힘이 센 여성의 모습을 다룬 이야기가 많다는 점과 여성의 강인함을 나타낸 점이 진보된 여성성을 찾아볼 수 있어 유아기 양성평등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착안하게 되었다. 둘째, 제주설화 속에는 할망이 자주 등장하는데, 나이든 여성이 등장하는 배경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유교문화의 전통을 둔 가부장제에서 할아버지가 아니라 할머니가 주로 등장하는 점은 기존사회에서 남성에게 요구되는

주도적인 역할에 상응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본 연구자의 이러한 관심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방대한 이야기를 선별하기 위해 제주에 가장 많은 삼다(三多: 돌, 바람, 여자)를 주제로 이야기를 수집 분석하여 유아기 양성평등 교육 가능성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문제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 교육을 위한 제주설화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2. 양성평등 교육을 위한 제주설화의 유아교육적 함의는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유아기 성역할 획득과 양성평등 교육

전통적인 성역할의 개념은 남녀의 차이를 강조하는데서 비롯되었다. 성역할이란 개인이 속한 문화권내에서 그 개인에 대하여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는 일련의 특성으로, 한 개인에 의해 채택되고 발현되는 여성적 특성과 남성적 특성의 유형과 수준을 말한다. 남성과 여성은 신체적으로 다르며 심리적으로도 다른 여러 가지 특성이 있으므로, 남성과 여성은 뚜렷이 구별된다. 그러나 신체적 구분으로 인한 차이는 차별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평등하게 인식하게 교육하려는 것이 양성평등교육의 목표이다.

성역할에 대한 기대는 사회의 일반적인 성차별주의와 민족, 문화적 배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Honing(1983)은 유아가 4세경에 이르면 이미 사회가 기대하는 성에 적합한 행동을 하게 되고, 성인의 개입 없이도 또래 유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런 행동을 강화해간다고 하고, 여성성과 남성성을 구분하는 주요한 특징으로 남자는 강함, 적극적 특성으로, 여자는 약함, 수동성으로 이분화되며 정형화된 성 역할 고정관념을 갖게 된다.

본 연구가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해 주목하는 이유는 고도로 성유형화된 여성적인 여자는 불안 수준이 높고, 낮은 자존감과 자기 수용을 보이기 때문이다. 즉, 높은 남성성(masculinity)은 불필요한 경쟁력과 지배력, 비민감성을 조장하며, 높은 여성성(femininity)은 수동적이고 의존적이며 무능력을 조장한다(Block, 1973). 그러므로 극단의 이분법적 성역할 개념은 복잡하고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실제적인 적응을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양성의 긍정적 특성을 심리적으로 통합한다면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심리적으로 건강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심리학자 Sandra Bem(1975)은 양성성(androgyny)이란 용어를 통해 성역할의 융통성을 설명한 바 있다. 양성성이란 고정된 성역할 개념과 관계없이 가장 효과적으로 보이는 행동은 성별에 관계없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양성성을 갖춘 사람은 넓은 범위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특수한 상황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단호함이나 온화함을 보일 수도 있고, 남성과 여성의 이중적 상황에서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유아기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고 성별에 따른 사고와 태도가 발달하는 시기이므로(Mary & Jane, 1999), 심리적 양성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설화에 주목하였다. 왜냐하면, 제주지역의 설화는 여성이 많은 사회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기존의 가부장적 문화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양성

평등 교육은 남성의 여성성 획득과 여성의 남성성 획득의 양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본 연구는 기존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성의 여성성보다는 여성의 남성성 획득이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제주설화에 나타난 여성모델을 통해 유아교육적 의미를 찾고자 한다.

2 양성평등 교육을 위한 제주설화의 활용

제주설화를 활용한 유아기 양성평등교육의 근거는 유아들의 문학적 접근을 통해 가능하다. 아동의 문학적경험을 독자와 본문사이의 교류로 설명한 Rosenblatt(1978)의 독자반응이론(reader response theory), 또는 문해 교류 이론(Goforth & Spillman, 1994)에 근거하여 유아의 사전경험, 느낌, 지식이 이야기를 통해 연결되고, 이야기에 대한 의미를 구성하고, 이야기와 관련한 다양한 반응을 창조해간다.

아동은 책을 읽거나 듣는 동안에 이야기에 담겨진 내용이 상징하는 바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동화에 나타난 주인공은 성격과 말투, 태도 등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환상적인 생각을 통해 지적성숙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홍연애, 1991; 홍연애, 정옥분, 1993; 황지현, 2002).

그러나 아동도서 출판 경향을 분석한 한 연구에 의하면(강문희, 2000), 역사속의 위인이 대부분 남성으로 여성은 거의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남자가 인간을 대표하는 것으로 유아들이 생각할 수 있다.

유아의 그림책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성별출현빈도를 비교한 연구결과에 의하면(정방숙, 1985), 남녀주인공의 비율이 3.6:1로 남자주인공의 편향이 매우 높음을 보여주고 있고, 남녀 등장인물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남자의 직업은 7가지 직업군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반면, 여자의 직업은 가사 혹은 양육에 치중하고 있고(류혜원, 2000), 여성에게는 효, 우애, 협동, 감사 등을 강조하는 반면 남성에게는 지혜, 지식, 문제해결력, 창의력 등을 강조한다(조정란, 2000). 또한 형용사의 사용을 기준으로 성역할 고정관념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이현서병숙, 2000), 남성전형 형용사가 여성에게 사용될 경우 계모나 놀부의 아내 등 부정적 역할로 묘사되고, 여성이 남성적 성격을 갖게 되면 마녀와 같은 역할로 묘사되고 있다(김현정, 1999). 즉, 여성적인 여성은 공주의 유형에 속하지만 남성적인 여성은 마녀의 유형에 속하게 된다.

설화는 심리적 조건에 의한 변화, 문화적 조건에 의한 변화, 자연환경에 따른 변화, 민족 공동의식의 변화, 화자와 청자에 의한 변화 등으로 만들어지고 변화되고 소멸되는 과정에 놓이게 된다. 흔히 신화나 전설은 전래동화로 개작되어 읽기자료인 책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신화나 전설이 전래동화로 수용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동화가 동심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유아의 발달과 정서를 고려해야 할 뿐 아니라 교훈적이고,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면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설화나 전설이 모두 다 전래동화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설화를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비문학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 속에서 대표성이 드러난 작품, 문학성이 있는 작품, 유아의 발달 수준과 정서에 부합되며 교육성이 내재된 작품, 지역민의 생활, 사상, 감정 등의 정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작품, 사회적 관념으로 볼 때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작품, 종교집단이나 특정이익 집단으로 하여금 문제를 제기 받지 않는 작품을 선택해야 한다(박희순, 2003).

이때 고려해야 할 점으로는, 먼저 설화들의 범주 내에서 대표성을 지녀야하며, 고어나,

방언, 한자어 등 전달에 장애를 주는 텍스트는 개작이 필요하다. 또한, 학습자들의 흥미, 관심, 수용정도, 이해정도, 이해방식, 전달 매체별 경험 특성, 만족도, 중요도 등 설화의 수용 실태와 요구를 면밀히 검증해야한다(김효선, 2006; 박남숙, 2005).

뿐만 아니라 구연자가 쓴 지나친 사투리, 어려운 어휘, 너무 긴 문장, 호응이 안 되는 문구, 비논리적인 문장, 시대에 맞지 않는 윤리나 도덕, 타고난 환경을 운명론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성에 대한 문제를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다룬 부분, 남존여비사상을 보여주는 부분 등은 원형을 깨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작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주제나 사상, 표현 면에서 원작에 충실해야 하고 그 이야기의 의미를 바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김효선, 2006; 정진, 2002; 박남숙, 2005)

따라서 양성평등 교육을 위해 제주설화를 살펴볼 때는 언어적 편견, 성역할 고정관념, 희소성, 불균형, 비현실성, 분절화를 고려해야하며(Sadker, Sadker & Long, 1997), 여성인물에 나타난 성 고정관념, 여성의 관점 반영정도, 현실 사회반영, 중심주체화의 정도, 언어적 편견(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99)도 고려해야 한다. 사용되는 단어와 어휘, 주인공의 성역할 및 성격묘사, 특히 여성이 묘사되었을 경우 수동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지, 또는 특정 계층이 권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부분은 없는지, 가족관계나 문화 등도 고려(Derman-Sparks, et al, 1989)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설화를 교육 자료로 활용할 경우, 유아는 지명, 지형, 마을 등 자연 경관이나 공간의 유래에서부터 이야기 속에 나타난 지역의 역사와 사람들의 사고방식, 생활사, 신앙, 풍속 등을 알게 되고,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내용이 허구화되는 과정에서 유아들은 역사적 인물을 통해서도 자긍심을 갖게 될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양성평등교육을 위해 선별한 제주지역의 설화는 유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문대할망, 냇기 송씨덕 며느리, 자청비, 수월봉과 녹고물, 영등할망, 산호해녀의 6편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자료수집

일반적으로 설화는 신화, 전설, 민담으로 삼분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고 세계적 통례로 되어 있다. 그런데 조희웅(1976)은 3분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인물의 특성과 이야기의 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정소영(2004)은 전래동화를 역사 영웅동화, 환상세계 경험동화, 교훈지혜동화로 구분하였고, 한선아(2003)은 기지유머형, 지식형 혼계형, 보은형, 기타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제주의 전설과 민담을 출간한 서적에 언급된 내용을 기초로(임석재, 1992; 진성기, 1968, 1976; 현용중, 1996) 제주의 삼다(돌, 바람, 여자)를 주제로 한 이야기 1,022편을 수집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1차 분석은 2006년 3월부터 5월까지 이루어졌으며 1,022편의 이야기를 예비 유아교사 68명이 유아를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삭제하여 619편의 이야기를 선별하였다. 2차 분석은 2006년 5월부터 8월까지 예비유아교사 68명이 유아기 발달수준의 적합성, 문학성, 교육성, 매체의 제작가능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245편을 선별하였다. 3차 분석은 2006년 8월부터 9월까지 경력 8년 이상의 유아교사 2인이 주인공의 성별(남/녀/기타)과 연령(유아기, 청 중년기, 노년기)에 따라 지명, 지형 등의 자연 공간, 생활방식, 신앙, 풍속을 고려해 5점 기준으로 평균 3점 이상 받은 이야기 67편을 선별하였다. 선별된 67편은 예비교사의 매체제작 선호도를 고려하였으며, 제주여성의 특성 중 긍정적 요인(정민, 2004)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유아의 흥미를 고려하여 본 연구자가 6편의 설화에 나타난 유아교육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IV. 연구결과

1. 양성평등 교육을 위한 제주설화

설화의 전파성을 감안할 때 어느 지역의 설화를 몇 가지 특성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주인공의 연령(유아기, 청 중년기, 노년기)과 성별(남/녀/기타)을 기준으로 지명, 지형 등의 자연 공간, 생활방식, 신앙이나 풍속 등의 지역성을 고려해 각 1점씩 3점과 여성의 독립성, 적극성, 창조성, 강인함, 주도성 등의 양성성을 고려해 각 1점씩 5점 기준으로 점수화하였다. 기타는 귀신이나 괴물 또는 신적인 존재로 제목이나 내용에서 성별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나 동물이나 사물이 등장하는 경우는 기타로 분류하였으며 3점 이상 자료의 목록은 <표 1>과 같다.

<표 1> 선별 자료의 목록

구분	제 목(빈도)	구분	제 목(빈도)	구분	제 목(빈도)
	각시물통(1)		상군해녀(2)	47	여산부인(6)
1	각시바데이야기(1)	24	새당할망(9)	48	여우물(7)
2	각시바위(5)	25	설문대할망(36)	49	여장부 흥할망이야기(1)
3	개국신화(2)	26	송씨할망(11)	50	열녀 이재열 고조모(1)
4	금덕이여(1)	27	수월봉과 녹고물(23)	51	이청잘물 여우귀신(3)
5	김녕사굴이야기(1)	28	순천이(1)	52	자지명왕 아가씨(2)
6	넋기 송씨맥 며느리(20)	29	신집며느리(1)	53	자청비(11)
7	늘우시동산(1)	30	신촌효부(6)	54	제주도할망설화(1)
8	대봉이 딸(1)	31	실거리꽃(1)	55	지장샘(1)
9	대봉이터와 남매(2)	32	심들강씨 할망(1)	56	지혜있는 여인(2)
10	들음돌 할머니(1)	33	애기업개(8)	57	처녀당 전설(2)
11	마똥이(1)	34	열녀국지(4)	58	천지연(8)
12	마마신(5)	35	열녀김천덕(7)	59	태흥리 경감맥 며느리(1)
13	매고할망(4)	36	열녀부씨의 처(3)	60	토산뱀(1)
14	문만호의 힘센며느리(5)	37	열녀오씨지문(2)	61	강씨 솔할망이야기(5)
15	백록담의 선녀(2)	38	열녀이야기(2)	62	해녀와 산호수(1)
16	백주또(7)	39	열녀정부인 김씨(1)	63	허웅애기(1)
17	비양도(3)	40	영등할망(14)	64	호근리 삼신물(1)
18	산방덕의 눈물(12)	41	오백이터할망과 하르방(2)	65	혼인지(2)
19	산호해녀(21)	42	오백장군(2)	66	힘센김씨할망(5)
20	삼공분풀이(2)	43	용궁올래(2)	67	힘센며느리(1)
21	삼성혈(6)	44	만행이 할머니(5)		
22	삼신할망(15)	45	이열부좌씨(1)		
23		46			

* ()는 매체제작 선호도

먼저 밝혀줄 점은 제시된 자료들은 제목이 같은데 주인공의 연령이나 이름이 다르게 제시된 경우도 있고, 같은 제목이지만 내용이나 지역 명, 또는 전개상황이 다른 경우도 있었다. 연령별로 구분하면 영유아기는 아기가 신에게 재물로 바쳐지는 내용이 있었고, 청 중년기의 경우 결혼유무에 상관없이 여성이 정조를 강조하는 내용과 가족 간의 갈등을 다룬 내용과 원한을 갚는 내용이 있었고, 노년기의 경우 신과 할머니가 혼용된 이미지로 제시되는 경우가 있었다.

주인공의 성별로 구분하면 본 연구가 제주의 삼다(돌, 바람, 여자)를 주제로 이야기를 분석하였으므로 여성에 주목하게 되었고, 양성평등교육이 남성의 심리적 여성성 강화교육과 여성의 심리적 남성성 교육의 양방향에서 이루어져야하나 본 연구는 여성의 양성성에 접근하게 되었다.

2 양성평등 교육을 위한 제주설화의 유아교육적 함의

선별된 자료는 제주의 지형이나 문화를 반영한 내용으로 여성의 심리적 양성성이 유아교육에 주는 의미를 고려해 다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제주도를 만든 할머니(설문대 할망)

대부분의 설화에서는 주로 남성에 의해 창조가 이루어지나 제주설화 중 '설문대 할망'(또는 설문대 할망)은 여성이 창조신으로 등장한다.

한라산의 설문대 할망은 굉장히 키가 클 뿐 아니라 힘도 세었다. 삼으로 일곱 번 흙을 파서 던진 것이 한라산이 되었으며, 제주도내 여러 곳의 산들은 모두 할머니가 신고 있던 나막신에서 떨어진 한 덩이의 흙들이다. 한라산을 배게 삼고 누우면 다리가 바닷물에 잠겨서 발로 물장구를 쳤다.

또 서귀읍 법환리 앞 바다의 범섬에는 커다란 구멍이 두 개 있는데, 이것은 할망이 한라산을 배게 삼고 누울 때 발을 잘못 뺀어 뚫린 구멍이라고 한다. 할머니가 빨래를 할 때는 한쪽 발은 한라산, 다른 한 쪽 발은 제주시 앞바다의 관탈섬을 딛고 서서 그 가운데의 제주해협에서 빨래를 빨았다고 한다.

성산 일출봉에는 특히 큰 기암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할머니가 바느질 할 때 불을 켜던 등경돌이고, 하나는 바느질 도구를 넣었던 반질고리라고 한다. 제주시 한 천 위쪽에는 큰 구멍이 파인 바위가 있는데, 이것은 할머니가 쓰던 감투였다고 한다. 이처럼 할머니는 거인이었으니 옷이 제대로 있을 리 없었다. 그래서 마을사람들에게 속옷을 한 벌만 만들어 주면 본토까지 걸어 다닐 수 있는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했다. 속옷을 한 벌 만드는데 명주 1백동(명주 50필)이 든다.

주민들은 있는 힘을 다해 명주를 모았으나 99동 밖에 안 되었다. 1동이 모자라 다리 놓는 작업은 중단되어 버렸다. 그 자취는 조천리 앞바다, 신촌리 앞바다, 모슬포 앞바다 곳곳에 있다. 또한, 할머니는 키가 굉장히 컸다.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용연에 들어서니 물은 겨우 발등에 닿았고, 서귀읍 서흥리에 있는 흘릿물에 들어서니 겨우 무릎 까지 닿았다. 이렇게 제주도내의 물길이를 재며 다니다가 마지막으로 한라산에 있는 물장오리에 들어섰더니 키가 넘어 그만 빠져죽고 말았다. 물장오리가 밀이 터져 매우 깊은 것을 할망은 몰랐던 것이다.

설문대 할망은 치마폭에 흙을 퍼담아 제주와 한라산을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신발에 떨어진 흙덩이들은 360개의 오름이 되었고, 제주의 모든 것은 할망이 사용하던 흔적임을 설명하고 있다. 할망의 속옷을 만들 명주 한 동이 모자라서 다리 놓는 일을 중단하게 되어 육지와 연결되지 못했다는 점은 화산폭발의 과학적 사실을 이야기를 통해 재미있게 지리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 영유아 수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또한 노인은 작고 힘이 없고 조용히 있는 약한 존재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크고 사람들이 사는 땅을 만드는 거대한 모습으로 제시되어 제주도를 만든 사람이 할아버지가 아니라 할머니였다는 점에서 주목하였다.

2) 부지런하고 힘이 센 아줌마(넋기 송씨덕 며느리)

힘이 센것은 남성적이며, 약하고 온순한 것은 여성적이라는 생각을 전환하는데 다양한 연령계층의 여성모형이 등장하여 힘을 과시하는 내용들을 통해 여성의 강인함을 볼 수 있다.

옛날 이 마을 송씨 집단에 성읍리에서 시집온 며느리가 있었다. 그 며느리의 힘은 대단하여

이 마을의 장사도 모두 깜짝 놀라 버린 적이 있었다. 이 마을 청년들은 상덕동산에 모여서 '들음돌'을 들어 서로 힘자랑을 하곤 했다. 들음돌이란 동그랗고 큰 바위 돌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길거리에 놓아두어 청년들이 힘내기로 힘을 겨루는 돌이다. 어느 날 송씨댁 며느리가 물을 길어 나르기 위해 물 허벅을 등에 지고 상덕동산을 지나게 되었다. 한 청년이 그 광경을 보고는 "아침부터 재수 없이 빈 허벅을 지고 우리 앞을 어지럽히는 게 누구냐?"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송씨 댁 며느리는 기분이 좋지 않아 빈 허벅을 등에 지고 들음돌 위에 걸터앉았다. 모어선 청년들이 어이가 없다는 듯 송씨 댁을 쳐다보았는데 한 청년이 말하길 "그 돌이 어떤 돌인데 여자가 감히 걸터앉아?"라고 말했다. 송씨 댁 며느리는 "돌 위에 앉지도 못하나?"하고 송씨 댁이 말하자 "그게 보통 돌덩어리야? 장사들이 힘자랑을 하는 들음돌인데..."하고 청년이 말하였다.

송씨 댁 며느리는 허벅을 벗지도 않고 들음돌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그 돌을 들고서는 상덕동산 밑으로 힘 던져버렸다. 청년들은 서로 입만 딱 벌린 채 서로 쳐다보았다. 몇 일이 지나 청년들이 내팽개쳐진 들음돌을 제자리에 옮기려고 네 명이서 들러했지만 도무지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송씨 댁 며느리에게 부탁을 하여 들음돌을 옮기게 되었고, 그 후로부터 송씨 댁 며느리가 빈 허벅을 등에 지고 아침 일찍 지나도 빈정거리는 청년이 한 사람도 없었다.

비슷한 내용으로 '들음돌을 들어올린 할머니', '문만호의 힘센 며느리', '힘센 며느리', '심돌양씨 할망', '신집 며느리 흥할망', '한효종의 딸' 등은 모두 힘자랑을 하는 이야기이다. 할망이 힘이 세어 장사들이 드는 무거운 돌을 들었다거나, 며느리가 힘이 세다는 이야기들은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황소 10마리를 먹고 태어난 누이는 황소 9마리를 먹고 태어난 동생보다 힘이 세어 동생이 위급한 상황에서 보살펴준다는 '김초시의 누이' 이야기들은 모두 남성보다 강한 여성으로 등장한다.

이 이야기는 아침부터 여자를 만나면 부정 탄다는 여성의 부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남자 앞을 지나가는 여성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모습은 성편견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빈 허벅을 지고 가는 며느리의 모습은 물이 귀한 제주에서 물을 길러 빈 항아리를 등에 지고 가는 모습에서 제주의 생활상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주로 말이 많은것은 여자라고 생각하지만 이야기에서는 들음돌을 들어 던짐으로써 시비를 거는 남자들과 맞서고 있다. 아줌마의 남편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줌마 본인이 들음돌을 던져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몇 일후 다시 돌을 제자리에 두려고 하자 옮길 수 없어 송씨 댁 며느리에게 부탁하는 모습을 통해 여성이 약하고 남성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하게 한다.

3) 어려운 일도 열심히 스스로 하는 꾀 많은 아가씨(자청비)

자청비는 제주도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섬기기 시작한 농경, 오곡의 여신으로 '세경할망'이라고도 한다. 자청비 이야기는 '세경본풀이', '백중굿', '마불림제', '용왕맞이굿' 등으로 불리며, 영웅은 남성이고 의례 이들의 시련담이 주가 되는 경우와 달리 여성의 신적능력을 나타내는 이야기이다. 원래 자청비의 이야기 화소는 아래에서 제시한 것 보다 훨씬 길다. 여기서는 유아에게 적합한 부분만을 축약하였다.

부자부부에게 나이 오십이 되어도 자식이 없자 백일불공을 드려 자청해서 낳은 자식이라 하여 자청비라 이름을 짓게 된다. 자청비는 빨래하러 갔다가 공부하러 내려온 옥황상제의 아들(문도령)을 좋아하게 된다. 그래서 남장을 하고 문도령과 함께 글공부를 한다. 두 사람은 한

방에서 같이 자고 같이 공부하며 지내게 되는데 문도령은 점점 자청비를 여자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게 된다. 자청비는 은대야에 물을 가득 떠 놓고 은저, 늦저를 걸쳐놓고 잠을 자자 문도령이 그 이유를 묻는다. 자청비는 은저, 늦저가 떨어지지 않으면 공부가 잘 된다고 말한다. 문도령은 자청비 만큼 공부를 잘 하고 싶어 자신도 그렇게 하고 자는데, 은수저, 늦수저가 떨어질까 불안하여 잠을 잘 수 없었고 공부가 잘 되지 않았다.

하루는 문도령이 자청비가 여자인 것을 밝히려 오줌멀리누기 시합을 하자고 한다. 자청비는 대 막대기를 주어져 바지 가랑이사이에 넣고 힘을 주니 문도령의 두 배나 멀리 나가자 더 이상 자청비가 여자임을 의심하지 않았다.

삼년이 지나 공부를 마친 문도령은 서수왕 따님 아기와 혼인을 하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다. 자청비는 돌아가는 길에 여자인 것을 고백하고 혼인을 약속한 후 술 석 잔을 나누어 먹고 첫날밤을 지낸다. 문도령은 박씨 한 알과 얼레빗 반쪽을 남기고 떠난다. 자청비는 아무리 기다려도 문도령이 돌아오지 않자 자청비는 속이 뒹다. 자청비가 문도령을 기다리는 줄 안 하인 정수남이는 자청비를 골려주기 위해 산에서 문도령을 보았다고 거짓말을 한다. 자청비는 정수남이에게 문도령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달라고 한다. 정수남이는 자청비를 데리고 산에 올라 고생만 시키고 문도령이 있는 곳을 말해주지 않는다. 밤이 으스스해지자 자청비는 그제서야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청비는 정수남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정수남이를 달래며 밤을 보낼 움막 하나를 지어달라고 한다. 기분이 좋아진 정수남이는 열심히 움막을 지었다. 여기저기 구멍이 난 움막을 보며 자청비는 바람이 든다하여 구멍을 막으려 한다. 정수남이가 다섯 구멍을 막으면 자청비는 두 구멍을 뻐면서 날이 밝는다. 아침이 되어 자청비가 산에서 내려오니 문도령이 자청비를 찾아와 이 둘은 반갑게 만난다.

자청비의 원래 내용에는 정수남이를 죽이고, 정수남이를 죽였다는 사실을 부모님이 알게 되어 집에서 쫓겨 나며, 방랑생활을 하는 과정의 이야기들이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는 정수남이를 죽이는 내용은 유아에게 부적합한 내용이기 때문에 부득이 삭제하게 되었고 이후의 무용담은 내용이 길어 축약하였으나 자청비의 지혜를 강조하고 후반부는 행복한 결말로 마무리 하여 설화의 원형을 가급적 그대로 살리고자 하였다.

자청비는 빨래하러 갔다가 문도령을 만나게 된다. 과거에는 여자들이 집안일을 주로 하였으나, 글공부가 하고 싶어 남자로 변장하는 모습이라든가, 남자보다 공부를 더 잘 했다는 점이라든가 여자임을 의심받게 되자 오줌누기 시합에서 이기기 위해 기지를 발휘한 점은 유아기에 흥미로운 화소이다.

오줌멀리누기 시합장면은 프로이드가 말하는 남근선망에 대한 부분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남녀의 신체적 차이를 오줌멀리누기 시합에서 자청비가 꾀를 내어 이기는 장면은 신체적인 조건을 넘어서는 기지라 할 수 있다. 또한, 정수남이가 문도령을 핑계로 산에 올라가게 되어 자청비가 위험한 상황이 되지만, 지혜를 발휘해서 움막을 짓게 한다든지, 밤새도록 구멍을 뻐내면서 정수남이를 바쁘게 만드는 장면은 위험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현명한 대응방법이라 할 수 있다.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지혜를 발휘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게됨을 주목하고자 하였다.

이와 유사한 이야기로 '바리데기', '당금애기', '가문장 아기' 등의 이야기를 들 수 있는데, 이들 이야기와 비교해 볼 때 불가피하게 상황을 수용한 것과 달리 자청비는 위험한 상황을 기지를 발휘하여 위기를 모면하였다.

4) 병든 어머니와 어린 동생을 돌보는 누나(수월봉곡 녹고물)

이 이야기는 제주지역의 지형과 관련하여 제주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내용으로, 어머니와 동생을 돌보는 누나의 모습을 통해 가족관계에서의 주도성과 성실성을 주목하였다.

한경면 고산리 바닷가에 있는 자구내라는 작은 동네에 한 어머니가 수월이라는 딸과 녹고라는 아들을 데리고 살았다.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어린 남매를 데리고 사느라 어머니는 고생을 하여 그만 병이 들고 말았다. 그러나 남매는 어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해 좋다는 약초를 구하러 산에 오르기를 여러 차례 했지만 어머니의 병은 차도가 없었다. 하루는 스님이 남매에게 백가지 약초를 달여 드리면 어머니의 병환이 나을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남매는 산을 올랐다. 스님은 백가지 약초를 달여 드셔야 낫는다고 하였는데 남매는 아흔 아홉가지 약초를 구하였으나 한 가지 약초가 부족했다. 그런데 마침 절벽 틈에서 자라고 있는 오갈피를 발견했다. 녹고는 걱정했지만 수월이는 오갈피를 뽑기 위해 절벽으로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겼다. 그런데 그만 수월이는 절벽 틈에서 자라고 있는 약초를 캐려고 발을 옮기던 중 낭떨어지로 떨어져 바닷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동생 녹고는 수월이 누나가 죽게 되자 너무나 슬퍼서 엉엉 눈물을 흘렸다. 녹고가 흘린 눈물은 땅속으로 스며들어 바닷가를 지나 바위틈에서 샘물로 솟아 올라왔다. 샘물은 수월이의 피로 얼룩진 바위를 깨끗이 씻어 주었는데, 이 물은 녹고물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낭떠러지가 있는 오름을 녹고물 오름, 물나리 오름이라 하고 이 오름의 봉우리를 수월봉이라 한다.

병든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아흔 아홉 가지를 약초를 가지고도 한 가지가 부족하여 스님이 말한 백가지 약초를 드리기 위해 위험한 상황에서도 용기를 내어 절벽에 있는 약초를 캐내는 주도적이고 용감한 모습은 스스로 어려운 상황에서 독립적으로 행동한 동기에 주목하였다. 또한 수월이는 절벽에서 떨어져 죽게 되고 녹고는 슬픔에 눈물을 흘리는데, 이 눈물은 땅속으로 바다로 샘물로 솟아오른다는 이야기의 결말은 자연의 순환을 알게 하며, 녹고가 흘린물이 수월이의 비가 얼룩진 바위를 씻어주는 모습은 정화의 느낌을 갖게 한다. 국내외 전래동화의 공통점으로 동물이나 사물에 대한 생명성의 부여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단순히 동화의 흥미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연과 인간이 하나임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전경은, 2006).

5) 인간을 구하기 위해 괴물에게 죽은 할머니(영등할망)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지역에서 바다는 삶의 터전이다. 파도가 쉰 바다에서 집에 돌아오는 것이 할머니의 도움이라는 이야기이다.

옛날 인간세상의 사람도 저승세계의 사람도 아니고 용궁의 사람도 아닌 영등할망이 제주바다의 수평선 저 너머에 살고 있었다. 태풍이 몰아치는 어느 날 제주 한림의 한수리 마을 어부들이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거친 풍랑을 만났다. 어부들이 탄 배는 사나운 파도에 휩쓸려 무서운 외눈박이 거인들이 사는 나라로 흘러가게 되었다. 외눈박이는 이마 한 가운데에 큼직한 눈이 하나 달려있고 몸체가 거대한 무서운 괴물이었다. 그래서 이를 보고 있던 착한 영등은 그 어부들을 구해야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어부들이 탄 배를 숨겨주었다. 그러자 외눈박이들은 눈에 불을 켜고 그 어부들을 찾기 시작했다. 외눈박이 귀신은 영등을 보자 어부들을 보았냐고 물었다. 영등은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도 못 봤다고 거짓말을 한다. 외눈박이 거인은 어부들을 놓쳤다고 투덜대며 돌아갔다. 파도가 잔잔해지자 영등은 어부들에게 고향마을에 도착할 때까지 '가남보살 가남보살'을 외우고 가라고 당부하였다. 어부들은 그러겠다고 맹세하면서 영등에게 감사하며 고향을 향해 출발했다. 어부들은 계속 가남보살을 외우며 항해를 했다. 그러던 중 고향마을이 눈앞에 보이자 너무 기쁜 나머지 가남보살 외우는 것을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 순간 다시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쳐 어부들이 탄 배는 다시 외눈박이들이 사는 곳 까지

떠내려 오고 말았다. 다행히도 영등이 아직 그곳을 떠나지 않고 있어 되돌아온 어부들을 보게 되었다. 어부들은 다시 영등에게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몸집은 거인이지만 마음이 착하고 어린 영등은 다시 이 어부들을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영등이 어부들을 살려주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외눈박이 거인들은 회를 내어 영등을 죽여 버렸다. 이때부터 제주인들은 바다의 재앙을 막아준 영등의 은혜를 생각하며 해마다 음력 2월 초하루부터 15일까지 영등굿을 한다.

이 이야기는 외눈박이 괴물과 영등할망을 선과 악의 대립을 통해 외눈박이 괴물로부터 영등할망이 어부들을 구하고 할머니는 괴물에게 죽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영등은 고기잡이 어부들이나 해녀들에게는 안전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착하고 어린 덩치 큰 할머니의 등장은 유아들에게 친근감을 갖게 한다. 이 이야기는 선과 악의 대비를 통해 슬픈 결말을 맺고 있으나 영등할망이 인간을 살려 줄 때 말한 주문을 외우도록 하는 부분은 유아들에게 반복을 통한 어휘적 즐거움을 갖게 하며, 주문을 멈추었을 때 다시 원래상태로 돌아가는 점은 반복의 즐거움과 환타지를 갖게 한다. 실제 영등굿은 '제주 칠머리 당굿'(국가 무형문화제 제 71호)이라 하여 제주시 사라봉에서 재현하고 있고, 제주에서는 영등굿을 하는 동안에 결혼식을 하지 않는 풍습이 있다.

6) 생명을 존중하는 직업여성(산호해녀)

제주의 생활터전은 바다이고 앞서 제시한 영등할망에서 주인공이 어부 즉, 남성이라면, 산호해녀는 바다 속에서 해산물을 캐오는 직업여성의 모습이 제시된다. 직업을 주제로 하여 남녀가 같은 일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어느 날 한 해녀가 금로포(남제주군 안덕면 사계리)에 물질을 하러 가게 되었다. 그때 우연히 바닷가 웅덩이에 빠져 있는 대모(바다거북의 일종)를 발견하게 되었다. 밀물에 올라왔다가 물이 빠지자 마쳐 바다로 가지 못한 것이 분명했다. 해녀는 불쌍한 생각이 들어 대모를 잡아서 바다에 놓아주었다. 목숨을 건진 대모는 기쁜 듯 바다를 향해 헤엄쳐 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잠시 멈춰서더니 감사의 절이라도 하듯 뒤돌아서 머리를 까딱까딱하고는 유유히 물속으로 사라졌다. 바다거북을 살려준 며칠 후 해녀는 어느 때와 같이 전복을 따기 위해 용머리(남제주군 안덕면 사계리) 아래로 물질을 갔다. 큰 전복을 따려고 깊은 물속으로 잠수하여 얼마간 들어갔는데, 한참을 들어가다 보니 조개들로 장식된 화려한 용궁이 눈앞에 나타났다. 해녀는 내심 놀라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 좀 더 깊이 들어갔다. 바다 속 그곳엔 기이한 꽃들이 만발하고 화려하고 으리으리하게 치장한 궁궐이 웅장한 기운을 내뿜으며 자리 잡고 있었다. 해녀는 전복을 캐는 것도 잊고 궁궐 문 앞으로 다가갔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기품 있는 부인이 나와서 "내 자식을 살려줘서 고맙다"고 하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하면서 부인은 해녀를 반겼다.

해녀는 영문도 모른 채 후하게 대접을 받았고 그 부인으로부터 "이 꽃만 있으면 마마는 면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선물을 받고 돌아왔다. 해녀는 바다거북과의 인연으로 후하게 대접받은 용궁을 생각하며 소중히 그 꽃을 간직했다. 그때부터 용궁에서 받은 꽃 때문인지 해녀는 늙어 죽을 때 까지 마마를 잊지 않고 오래오래 잠수하게 되었고, 마을사람들은 이 해녀를 산호해녀라고 불렀다.

이 이야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녀가 용궁에 초대되어 산호를 받는 것은 용왕의 아들인 바다거북을 놓아주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설정은 유아들에게 제주의 생활상을 알게 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는데 직접적인 동기를 갖게 한다. 삶의 터전인 바다 속의 모습과

용궁장면은 실제 유아들이 접하는 자연환경에 대한 환타지를 갖게 하며 부인이 선물로 준 산호를 받고 해녀는 죽을 때 까지 건강하게 살았다는 결말은 유아들이 생명존중을 통해 행복한 결말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한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제주의 삼다를 주제로 제주설화를 수집하여 6편을 제시하였다. 제주설화에는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제주민의 일상적 삶과 지형, 지명의 유래, 또는 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행하는 행위들의 기원 등이 나타나 있다. 본 연구에서 염두 해 둔 점은 설화의 기본적인 내용을 지나치게 손질하여 개작할 경우 오히려 창작동화라고 보아야 한다(정진, 2002; 김호선, 2006)는 점 때문에 가급적 원형을 그대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시된 이야기를 통해 여성의 역할이 컸던 제주상황을 알 수 있었으며, 이야기 속의 여성모델을 통해 양성평등 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적 의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제주도를 만든 할머니, 힘이 센 아주머니, 지혜로운 아가씨, 병든 어머니를 위해 위험을 무릅 쓰는 누나, 위험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해 준 할머니, 생명을 존중하는 해녀를 통해서 누나, 아가씨, 아주머니, 할머니, 해녀 등 다양한 세대의 여성모델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이며 창조적이고 교훈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이야기들은 표현방식이나 내용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생명에 대한 외경,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기본으로 사물이나 동물을 인간과 같이 살아있는 존재로 다루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는 결말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외 전래동화의 표현방식(전경은, 2006)과 맥을 같이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양성평등 교육을 위해 제시한 여성모델은 생명을 존중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악으로부터 자신을 희생하여 사람을 돌보는 인간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점은 다른 지역의 전래동화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점이다. 하지만, 힘이 센 여장사의 모습이나 제주를 만드는 신적인 능력을 지닌 할머니의 모습은 다른 지역의 이야기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며, 힘세고 강인한 창조적인 여성의 모습과 적극적이며 힘든 일도 열심히 하는 모습은 제주설화를 통해 양성평등교육을 자료로의 활용가능성을 주목하게 한다.

세계화를 향해 치달는 디지털 시대는 빠르고 새롭고 편리한 것을 앞에 두고 시공을 초월한 네트워크를 통해 하나로 연결되어 가고 있다. 반면, 오랜 세월을 거쳐 입에서 입으로 전해온 설화는 느리고 진부한 특정지역의 이야기로 취급될 수 있다. 그러나 제주설화를 통한 유아기 양성평등 교육자료의 개발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의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 유아기에 양성성 획득을 위한 문학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설화는 구전문학이므로 설화수집 과정에서 본 연구자는 서로 다른 제목의 이야기이지만 축약, 변형 등의 형태로 유사한 내용의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었다. 유아가 또 다른 문화 창조자가 되어 계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동화나 동극, 컴퓨터 자료, 이야기 나누기 자료나 현장체험 활동 등을 통해 추후 연구에서는 그 효과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문희(2000).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아동도서의 내용주제에 따른 출판경향 분석. 열린유아 교육연구. 5(1), 31-48.
- 김은숙(1992). 가족의 서열을 통해 본 제주인의 의식구조- 여성을 중심으로. 논문집. 제34집, 인문사회과학 편 제주대학교,
- 김현경(1999). 그림동화 등장인물의 전형성 연구- 프로이트, 융, 그리고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효선(2006). 전래동화의 개작양상과 교수-학습방법론 고찰.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혜원(2000). 한국과 일반 창작동화에 나타난 성역할 특성의 비교, 아동교육. 9(2), 61-81.
- 박남숙(2005). 전래동화를 활용한 이야기 창작지도 방법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재형(1998). 제주 전래동화연구: 제주설화의 수용양상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희순(2003). 교육연구방법을 통한 제주설화의 교재화 방안연구. 제주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석재(1992). 한국구전설화(전남, 제주도편). 서울: 평민사.
- 전경은(2006). 한국 전래동화와 외국 전래동화속에 나타난 생명사상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민(2004). 제주인의 성평등 의식과 제주여성의 정체성. 제주한라대학 논문집 제24권. 51-63.
- 정방숙(1985). 한국 전래동화와 창작동화에 나타난 남녀 주인공상 비교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소영(2004). 한국 전래동화에 나타난 설화수용 양상 연구. 조선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진(2002). 유아에게 적합한 구비설화의 특성 및 교육적 가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정란(2000). 유아용 그림동화에 나타난 성역할 고정관념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희웅(1976). 설화연구의 제 측면, 고전문학을 찾아서, 서울: 문학과 지성사.
- 진성기(1968). 남국의 전설. 서울: 일지사.
- 진성기(1976). 남국의 민담. 서울: 형설출판사.
- 한국교육과정평가원(1999).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양성평등교육 실현방안 연구. 연구자료 RRC 99-1. 서울: 아름문화사.
- 한선아(2003). 한국 전래동화에 대한 해석학적 이해.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허 춘(1999). 설화에 나타난 제주의 여성고, 탐라문화 16.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28.

- 현용준(1996). 제주도 전설. 서울: 서문당.
- 홍연애(1991). 유아의 성역할 고정관념 발달과 이야기 유형의 효과, 아동학회지, 12(2), 94-110.
- 홍연애 정옥분(1993). 전형적 비전형적 성역할 VTR프로그램이 유아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미치는 효과. 아동학회지, 14(1), 39-57.
- 황지현(2002). 가정과 연계한 성평등 동화활동이 유아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em, S. L. (1975). Sex-role adaptability: One consequence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 634-643.
- Block, J. K. (1973). Conceptions of sex roles some cross-cultural and longitudinal perspectives, *American Psychologist*, 28, 512-526.
- Cullinan, B. E. & Galda, E. (1994). *Literature & The Children(3rd ed)*. Fortworth, TX: Harcourt Brace & Company.
- Derman-Sparks, L, & the A. B. C. Task Force (1989). Anti-bias durriculum: Tools for empowering young children. NAEYC.
- Honing, A. S. (1983). Sex role socialization in early childhood. *Young Children*, 38(6), 57-70.
- M. Eliade, trans. by Wilard R. Trask. *The Myth of the eternal Return or, cosmos and History*. New York: Princetion University Press (2nd).
- Mary, L. T., & Jane, A. R. (1999). The influence of children's literature on gender role perceptions. *Early Childhood Educational Journal*, 26(3), 155-159.
- Rosenblatt, R. M.(1978). *The reader the test the poem: the Transactional theory of the literary work*. So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 Sadker, D. & Sadker, M. & Long. L. (1997). Gender and educational equality. In J. A. Banks & C. A. Banks(Eds.). *Multicultural education: Issues and perspectives*. Needham Heights, MA: A Viacom Company.

Abstract

Analysis of Jeju's Transmission Story for Psychological Andro-gyn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Choi, Jin Won

This research wished to analyze Jeju's transmission story and find model for psychological andro-gyn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First, 1022 story erased inappropriate story and second, selected considering adaptedness of development level, regional peculiarity, literary significance, educational value. Third, consider child's interest, considered positive quality of woman, and selected 6 story.

Jeju's story is different from other area, woman role is creative and, active and, leading and, strong. These points are important to educational media for psychological andro-gyn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s analysis result, found following points unlike other area in Jeju's transmission story. It becomes model which these points are good for early childhood psychological andro-gyny.